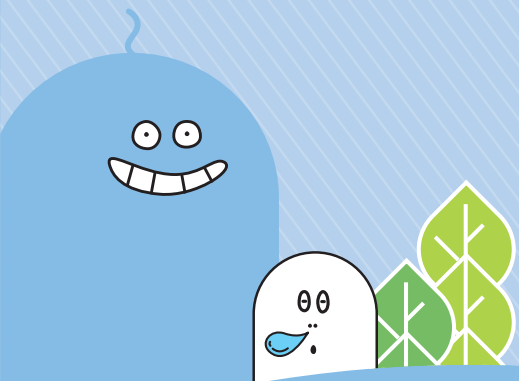




# 정답과 해설

## 3·2

초등 국어



|         |       |    |
|---------|-------|----|
| ◦ 진도 교재 | ----- | 2  |
| ◦ 평가 교재 | ----- | 29 |



# 정답과 해설

진도 교재



## 독서 단원 계획대로 차근차근 읽어오

수행 평가

8쪽

- 1 ㉠ 많아 보이는 책도 차근차근 읽을 수 있다.
- 2 ㉠ 반복해서 등장하는 낱말이나 가장 중요한 낱말을 찾아본다.
- 3 (1) ㉠ 『더운 지구 뜨거운 지구 펄펄 끓는 지구』  
(2) ㉠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 열대화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 환경 오염이 없는 착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3) ㉠ 사막화의 의미가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점점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새롭게 알았다.

## 1. 경험과 관련지으며 이해해요

핵심 확인 문제

10쪽

- |         |      |         |
|---------|------|---------|
| 1 경험    | 2 ×  | 3 듣는 목적 |
| 4 (2) ○ | 5 차례 |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1쪽

- 1 경험      2 (1) ㉠ (2) ㉠ (3) ㉠ (4) ㉠
- 3 (1) 지난주 일요일에 (2) 공연장에서 (3) 공연을 봤다. (4) 가족들과
- 4 (1) ㉠ 작년 여름에 (2) ㉠ 계곡에서 (3) ㉠ 캠핑을 했다. (4) ㉠ 가족들과 (5) ㉠ 멋진 풍경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웠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 5 ㉠

- 1 친구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 친구들이 한 말을 살펴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찾는다.
- 3 해진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는지 생각하여 정리한다.

- 4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겪었던 경험인지 떠올리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정리한다.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한 일인지,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릴 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1

기본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12~13쪽

- |  |     |
|--|-----|
| 1 (이사 간) 친구  | 2 ㉠ |
| 3 ㉠  |     |
| 4 ㉠ 옆집에 살던 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다.                        |     |
| 5 ㉠  | 6 ㉠ |
| 7 ㉠ 1학년 때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에 상처를 입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친구랑 놀고 싶지 않았다. |     |
| 8 ㉠ 눈 마주치기 싫고 /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 스멀스멀 올라와.                    |     |

- 1 말하는 이는 은행잎을 보고 방학 때 이사를 가 버린 친구를 떠올렸다.
- 2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아쉽다는 말, 친구가 보고 싶다는 말 등이 어울린다.
- 3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친구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느껴진다.
- 4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친척, 이웃 등이 이어나 전학을 가는 등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일을 떠올려 쓴다.

**채점 기준** 친한 사이인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일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1연에서 말하는 이는 맘속에 벽이 있으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화만 나고 답답하다고 했다.
- 6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란 약속을 마시면 그 애의 마음을 알 것 같아 ‘피식’ 웃음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7 마음의 벽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려 써 본다.

**채점 기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서운했던 경험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8 떠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본다.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시의 원래 형태와 유사하게 바꾸어 쓰면 좋다.

**채점 기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서운했던 경험을 담아 시의 형태로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4쪽

1 (1) 입장 (2) 어쩌면 (3) 피식  
 2 (1) 부서져서 (2) 답답하다 (3) 띄우는  
 3 예 친구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소단원 1** **특별**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감상하기 15~18쪽

1 ②                      2 바이올렛이 최고라는 말  
 3 완두콩                4 (1) ② (2) ①  
 5 ⑤                      6 로지, 바이올렛 7 ④  
 8 예 자신의 새싹이 최고가 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 바이올렛의 새싹이 조금 더 큰 것을 보고 질투가 났을 것이다.  
 9 ④                      10 ⑤                      11 예나  
 12 예 “로지야, 넌 참 대단해.”라고 말하고 싶다. 로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13 ⑤                      14 예 빙그레 웃었다  
 15 윤서  
 16 예 나도 강낭콩을 키웠다. 강낭콩 싹이 나오길 오랫동안 기다렸다. 작은 새싹이 올라온 걸 보니 정말 기뻐다.

- 1 바이올렛이 미술 시간에 가장 예쁜 그림을 그린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다.
- 2 바이올렛은 뭐든지 최고로 잘하지만, 로지는 바이올렛이 최고라는 말을 듣기가 싫었다.
- 3 반 아이들은 교실 뒤 창틀에다 저마다 하나씩 꼬마 화

분을 놓고 완두콩을 키우기로 했다.

- 4 바이올렛의 화분이 제일 반짝반짝 빛났고, 로지의 화분은 평범했지만 완두콩이 자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 5 씨앗이 건강한 식물로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찾아본다. 화분은 씨앗이 건강한 식물로 자라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6 어느 날 오후, 로지와 바이올렛의 화분에서 초록빛 새싹들이 흙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 7 로지는 자신의 새싹보다 바이올렛의 새싹이 조금 더 큰 것을 보고 바이올렛의 새싹을 흙으로 덮어 버렸다.
- 8 로지가 왜 바이올렛의 새싹을 흙으로 덮어 버렸는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짐작해 본다.

**채점 기준**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나 바이올렛의 새싹에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등 로지가 바이올렛의 새싹을 흙으로 덮어 버린 이유를 알맞게 짐작하여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로지는 바이올렛의 새싹을 흙으로 덮어 버리고 이제 자신의 완두콩이 최고라는 생각에 아주 잠깐 동안 기분이 ‘최고’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
- 10 로지는 바이올렛이 없는 2주 동안 매일 아침 학교에 일찍 와서 바이올렛과 자신의 화분을 정성껏 돌보았다.
- 11 윌리스 선생님의 칭찬에 로지가 활짝 웃었다고 했으므로, 로지가 창피해서 숨고 싶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 12 로지는 순간적으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로지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그 말을 해 주고 싶은 까닭은 무엇인지 써 본다.

**채점 기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친구의 화분을 돌봐 준 로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3 바이올렛은 늘 자신이 최고가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임이 나타난다.
- 14 이제 로지는 바이올렛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도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15 윤서가 한 말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거리가 멀다.

진도  
교재

16 이 이야기에서 로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고, 이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한 가지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친구에게 질투가 난 경험,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 식물을 돌보 경험, 잘못을 뉘우친 경험 등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9쪽

- 1 (1) 듄뿍 (2) 슬그머니 (3) 문득
- 2 (1) 나지막하게 (2) 평범한 (3) 에워싸자
- 3 예 그는 식구들이 깰까 봐 슬그머니 집을 나왔다.

## 소단원 2

**기본**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며 듣는 방법 알기

20~21쪽

- |                  |      |         |
|------------------|------|---------|
| 1 대화             | 2 ⑤  | 3 (1) ○ |
| 4 ①, ③           | 5 ③  |         |
| 6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 7 우주 |         |
| 8 ③              |      |         |

- 1 대화법 전문가 박민수 박사님은 자신을 친구들과 생각이 다를 때 대화로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 2 슬기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라고 말한 부분을 주의하여 살펴본다.
- 3 친구들과 생각이 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와 계속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4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며 들을 때, ②와 ④는 들은 후, ⑤는 듣기 중에 할 일이다.
- 5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친구가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 6 친구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에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 7 듣기 중에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메모할 때에는 '첫째', '둘째', '이것은', '따라서'와 같은 말에 주의하며 간추린다.

8 듣고 난 뒤, 들은 내용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22쪽

- 1 (1) 오해 (2) 해결 (3) 전문가
- 2 (1) 주의해야 (2) 요청했다 (3) 집중하다
- 3 예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쳤더니 이번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 소단원 2

**통합** 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 간추리기

23~24쪽

- 1 예 작은 개미가 호랑이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⑤                      3 콧방귀
- 4 (1) ① (2) ② 5 예 개미 떼      6 ⑤
- 7 예 자신보다 힘없고 덩치가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 8 (1) 2 (2) 3 (3) 1

1 호랑이는 작은 개미가 자신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채점 기준** 개미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 개미는 "흥. 힘만 세고,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호랑이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라고 했다.
- 3 '콧방귀'는 '코로 나오는 숨을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리면서 불어 내는 소리.'를 뜻한다.
- 4 '요리조리'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요쪽 조쪽으로.'를 뜻하고, '헛발질'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발길질.'을 뜻한다.
- 5 수많은 개미 떼가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크고 새카만 동물로 보인 것이다.
- 6 개미들은 호랑이의 털 속으로 기어들어 가서 호랑이를 간지럽혔다.



7 호랑이는 개미 떼에게 당하고 나서 자신보다 힘없고 덩치가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채점 기준** 자신보다 작은 동물들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등 호랑이가 깨달은 교훈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8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25쪽

1 (1) 된통 (2) 떼 (3) 콧방귀  
2 (1) 하찮은 (2) 헛발질 (3) 요리조리  
3 예 형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형은 콧방귀만 뀌었다.

**소단원 2** 통합 이야기를 듣고 글로 정리하기 26~27쪽

1 예 해운대 2 ㉔ 3 고소, 단맛  
4 (1) 예 흥천 옥수수가 달고 쫄쫄한 맛을 자랑한다는 부분  
(2) 예 흥천으로 여행을 가서 옥수수를 먹어 보고 싶다.  
5 ㉔ 6 고소, 보관 7 장인  
8 예 한지로 만들어진 책을 실제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다.

- 1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장소, 음식, 동물이나 식물 가운데에서 널리 알려진 것을 떠올려 본다.
- 2 흥천 옥수수가 말한 내용 중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야 공기가 깨끗하다는 내용은 없다.
- 3 울릉도 오징어는 말리면 맛이 고소하고 씹을수록 약간의 단맛이 나서 맛있다고 했다.
- 4 글에서 인상 깊은 부분, 재미있는 부분 등을 찾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글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5 질기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6 공주 알밤은 깨끗한 공기와 물, 흙 따위로 재배해 달고 고소하며,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말했다.

7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 와서 물건을 손으로 잘 만들고 고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낱말은 ‘장인’이다.

8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점, 잘 모르는 점 등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28쪽

1 (1) 재배 (2) 분주 (3) 보관  
2 (1) 고유 (2) 풍경 (3) 장인  
3 예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29쪽

1 ㉑ 2 ㉓ 3 노아  
4 (1) ㉑ (2) ㉒ 5 ㉑ 6 바지

- 1 모든 내용을 옮겨 적으면 안 되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적어야 한다.
- 2 ‘ㅎ’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ㅎ’ 받침은 소리 나지 않으므로 [나아]로 발음한다.
- 3 ‘ㅎ’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ㅎ’ 받침은 소리 나지 않으므로 [노아]로 발음한다.
- 4 ‘ㅎ’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ㅎ’ 받침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
- 5 ‘강아지’, ‘나비’, ‘상어’는 모두 동물에 포함된다.
- 6 빈칸에는 ‘옷’에 해당하는 낱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바지’, ‘치마’, ‘저고리’, ‘외투’ 따위가 알맞다.

## 단원 평가

30~32쪽

- 1 ③                      2 (2) ○                      3 은행잎  
 4 ⑤                      5 (1) ○  
 6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  
 7 예 친구에게 마음의 벽이 생겼을 때 그 친구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본다.  
 8 예 완두콩이 쑥쑥 잘 자라라고  
 9 ③                      10 듬뿍  
 11 예 미술 시간에 가위가 없어서 당황했다. 그런데 지윤이가 가위를 빌려주어서 정말 고맙웠다.  
 12 솔직하게              13 ③                      14 (1) ○  
 15 ①                      16 (3) ○  
 17 예 호랑이는 개미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18 ⑤                      19 재배  
 20 예 우리나라에서 밤이 나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싶다.

- 1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2 이사 간 친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드러난다.  
 3 떨어진 은행잎에 이야기를 담아 이사 간 친구에게 띄워 보낸다고 했다.  
 4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5 누군가에게 서운하거나 실망하여 속상했던 경험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본다.  
 6 맘속에 생긴 벽을 없애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라는 약을 마음에 풀어서 마시라고 했다.  
 7 누군가에게 마음의 벽이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벽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었는지 써 본다.

**채점 기준** 누군가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로지는 완두콩이 쑥쑥 잘 자라라고 마지막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었다고 했다.  
 9 바이올렛은 자신의 완두콩을 키워 준 로지에게 "고맙워, 로지."라고 말했다.  
 10 '매우 많거나 넉넉한 모양.'을 뜻하는 낱말은 '듬뿍'이다.

- 11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과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쓴다.

**채점 기준**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2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13 친구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려울 때에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14 대화를 들으며 간추리는 방법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는 것이 있다.  
 15 호랑이는 개미가 조그맣다고 무시했다.  
 16 개미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통에 호랑이는 개미를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  
 17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쓴다.  
 18 공주 알밤은 깨끗한 공기와, 물, 흙 따위로 재배해 달고 고소하며,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거리로 들었다.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내용은 없다.  
 19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재배'라고 한다.  
 20 공주 알밤이 말한 내용을 떠올리며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점을 생각해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 유창하게 읽고 발표해요

### 핵심 확인 문제

34쪽

- 1 ×                      2 속도                      3 (2) ×  
 4 ○                      5 중심 내용



- 1 강토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할아버지께서 큰 병이 나셨다.
- 2 생일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때의 기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서운하다.'이다.
- 3 강토는 큰 병이 난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읽어야 한다.
- 4 할아버지께서 큰 병이 나신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조용하고 우울할 것이다.
- 5 이 글에서 미안한 마음이 든 인물은 강토가 아니라 강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엄마이다.
- 6 엄마가 강토의 생일을 잊어버린 상황이므로 엄마는 강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 7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강토의 생일을 잊어버린 엄마께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할지 떠올려 써 본다.

**채점 기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강토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7번 문제에서 답한 내용을 어떻게 읽으면 강토의 마음과 장면의 분위기가 잘 드러날지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7번 문제에서 답한 내용의 분위기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 말투 등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는 줄 알고 서운했던 강토는 할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 두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께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물샘이 터졌다.
- 10 할머니와 엄마는 용감하고 할 말을 딱딱 해 대는 야무진 성격이라고 했다.
- 11 할머니와 엄마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강토는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푸짐한 생일상을 받았을 때에는 서운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고, 송이가 생일 선물 없이 카드만 내밀었을 때에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 13 강토는 할아버지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 14 할머니는 아끼던 손자 강토의 생일을 직접 축하해 주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눈물을 보였다.

- 15 ㉠에서는 강토가 할아버지께 예상치 못한 생일 선물을 받으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 16 장면 ㉠은 강토가 할아버지께 예상치 못한 생일 선물을 받은 상황이므로 ㉠은 감격하고 고마운 마음이 잘 드러나게 읽어야 한다.
- 17 상자 안에는 왕사탕만 하고 녹슨 자국이 있는 쇠구슬이 들어 있었다.
- 18 강토는 선물로 받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잔뜩 기대하고 상자를 열었는데 볼품없는 쇠구슬이 들어 있어서 실망했다.
- 19 강토가 처한 상황, 강토의 마음 등을 생각하며 강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강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0 분위기를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44쪽

- 1 (1) 부아 (2) 처량 (3) 예감
- 2 (1) 삼시간 (2) 차차 (3) 부리나케
- 3 예 갑자기 비가 와서 우리는 부리나케 집으로 갔다.

## 소단원 1

**통합** 장면을 떠올리며 유창하게 글 읽기

45~48쪽

- 1 (3) ○      2 ③      3 ④
- 4 예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서 형의 도움을 받아 매일 연습을 했었다. 지금은 형이 잡아 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탈 수 있게 되었다.
- 5 ⑤      6 ④      7 ④, ⑤
- 8 (3) ○      9 ④      10 (2) ○
- 11 결심하다
- 12 예 질문: 박에스더는 무엇을 타고 환자를 보러 다녔나요? / 답: 당나귀입니다.
- 13 진영      14 (2) ○
- 15 예 나도 박에스더처럼 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16 예 이순신: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위해 노력함.



3 그림 ㉠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써 본다.

**채점 기준** 색이나 크기, 모양이 달라 눈에 띄는 부분을 자유롭게 찾고 그 이유를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4 실제로는 승용자동차가 버스보다 작지만 번호판을 보여 주려고 승용자동차를 더 크게 그린 것이다.

5 유선 전화번호의 맨 앞자리는 지역 번호를 뜻한다.

6 주민 등록 번호에서 맨 처음 앞 두 자리는 태어난 연도, 그다음 네 자리는 태어난 날짜를 뜻한다. 그리고 ‘-’ 뒤의 첫 번째 숫자가 1, 3이면 남자, 2, 4면 여자이다.

7 지도에서 지역마다 다른 색을 사용해 표현했다.

8 글과 그림을 모두 활용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글과 그림을 모두 활용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글만 있을 때나 그림만 있을 때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52쪽

- 1 (1) 구별 (2) 편리 (3) 포함
- 2 (1) 가리키고 (2) 헛갈려서 (3) 담긴
- 3 ㉠ 우리 가족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이다.

## 소단원 2

**통합**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발표하기

53쪽

- 1 (1) ㉠ (2) ㉡ (3) ㉢ (4) ㉣
- 2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 3 ㉠ 글자 크기를 키우고, 다른 색깔로 바꾼다.
- 4 ㉡

1 글 ㉠은 태권도의 기본자세, 글 ㉡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 글 ㉢는 태권도의 띠, 글 ㉣는 태권도를 하면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다.

2 태권도 띠는 다양한 색이 있는데, 특히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 주로 사용된다고 했다.

3 글과 그림을 서로 어울리게 배치하고 색, 크기, 모양을 적절히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채점 기준** 제목을 강조할 수 있도록 색, 크기, 모양을 활용할 방법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4 제목이나 강조할 부분의 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54쪽

- 1 (1) 예절 (2) 체력 (3) 품새
- 2 (1) 집중하기 (2) 내디디지 (3) 존중하는
- 3 ㉠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예절이다.

##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55쪽

- 1 (1) ○ (4) ○
- 2 ㉣
- 3 지훈
- 4 ㉠
- 5 된줄, 된 줄
- 6 (1) ㉠ 주로 책을 읽을 때 쓰인다. (2) ㉠ 책작공

1 글을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을 때에는 적절한 부분에서 띄어 가며 읽어야 하고, 글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야 한다.

2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분위기라고 하는데,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인물의 마음을 보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3 발표할 때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림으로 전달하면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4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수’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의 ‘느낄수’는 ‘느낄 수’로 띄어 써야 한다.

5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말인 ‘줄’은 앞말과 띄어 쓴다.

6 제시된 사물은 ‘스탠드’로,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방구석 따위에 놓아서 그 부분을 밝게 하여 주는 이동식 전등이다. 스탠드의 특징을 떠올려 보고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본다.

단원 평가

56~58쪽

- 1 ⑤                      2 ②                      3 (1) ○  
 4 예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말고 가로수로 심는 나무가 무엇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  
 5 ⑤                      6 ①, ⑤  
 7 예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서 서운하다.  
 8 (2) ○                  9 ②                      10 ④  
 11 ③                      12 낮게 하다  
 13 예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읽는다.  
 14 ①, ②                  15 서우  
 16 (1) 예 제목에서 강조할 부분의 색을 다르게 했다.  
 (2) 예 지도에서 지역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17 ⑤  
 18 예 제목의 글자 모양을 다르게 하고, 제목에서 '주민 등록 번호'의 색을 다르게 하고 싶다.  
 19 (2) ×                  20 느낄 수

1 차나무, 감나무, 뽕나무는 잎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고, 헛개나무는 껍질을 말려서 쓰며, 플라타너스는 길가에 가로수로 심는다고 했다.

2 짙레나무나 탕자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옛날부터 돌담을 대신하는 울타리로 썼다고 했다.

3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어야 한다.

4 제시된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을 써 본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5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길면 한 번 더 띄어 읽도록 한다.

6 강토의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상황이다.

7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파악해 본다.

**채점 기준**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서 서운하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8 오빠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잘 드러나게 읽어야 한다.

9 ㉠에는 강토의 생일 선물을 잊어서 놀란 할머니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10 장면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

11 많은 사람이 콜레라에 걸린 상황이다.

12 '치료하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낮게 하다.'라는 뜻이다.

13 박에스터는 많은 집에 고양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박에스터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읽어야 한다.

**채점 기준** 사람들이 고양이 그림을 걸어 놓은 이유를 궁금해하는 인물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14 서울 시내버스 번호의 첫 번째 번호는 출발지, 두 번째 번호는 도착지를 가리킨다고 했다.

15 글에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16 글과 그림에서 색, 크기, 모양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본다.

**채점 기준** 제시된 글과 그림에서 색, 크기, 모양을 활용한 부분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17 주민 등록증에는 이름, 사진, 태어난 연도와 날짜, 성별, 주소 등의 정보가 있다.

18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색을 활용하여 강조하는 등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떠올려 쓴다.

**채점 기준** 제시된 글에서 색, 크기, 모양을 바꾸고 싶은 부분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19 글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한다.

20 '수'와 같이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말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느낄 수'로 고쳐야 한다.

진도  
교재

### 3. 정확하게 글을 써요

**핵심 확인 문제**

60쪽

- 1 ○                      2 출처                      3 이어 주는 말  
 4 (1) 그리고 (2) 그래서 (3) 그러나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61쪽

- 1 종이비행기    2 ①                      3 ③  
 4 ④

- 1 여자아이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던 일을 떠올려서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글을 썼다.
- 2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쓴 글을 읽고 '어떤 책을 보고 쓴 글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 3 ㉠의 앞 문장에서 설명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의 뒤 문장에서 설명하는 일을 해야 하므로, '그리고'가 들어가야 한다.
- 4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쓰는 것은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다.

**소단원 1**

**기본 글에 제시된 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기**

62쪽

- 1 올바른 손 씻기                      2 ④  
 3 예 친구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중요성을 알려 주려고    4 도영

- 1 국제연합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2008년에 10월 15일을 '세계 손 씻기의 날'로 정했다.
- 2 2023년 질병관리청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고 했다.
- 3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배워 꾸준히 실천합시다.'라고 했다.

**채점 기준** 친구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중요성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를 본문에서 글로 밝혔고, 활용한 그림 자료 아래에 출처를 썼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63쪽

- 1 (1) 질병 (2) 비법 (3) 감염병  
 2 (1) 어색하게 (2) 문질렀다 (3) 예방해야  
 3 예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단원 1**

**기본 출처를 확인하며 읽으면 좋은 점 알기**

64~65쪽

- 1 ⑤                      2 머리                      3 (1) ㉠ (2) ㉠  
 4 예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면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머리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6 ④  
 7 흥설                      8 (2) ○

- 1 글쓴이는 자전거를 탈 때에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바닥에 머리를 먼저 부딪치는 일이 많아 머리를 다치기 쉽다고 했다.
- 3 ㉠은 자료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온 곳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은 자료의 출처가 있기 때문에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다.
- 4 글을 읽고 이전엔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 또는 알고 싶은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그림 자료 ㉠의 아래에 자료의 출처를 표시해 두었다.
- 6 귀 아래에서 양쪽 손가락 두 개씩을 펼쳐 끈이 그 사이에 오도록 하는 것은 '4 법칙'에 해당한다.
- 7 어린이는 어른보다 머리가 더 약하기 때문에 안전모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 8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글을 읽으면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가져온 곳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66쪽

- 1 (1) 부상 (2) 법칙 (3) 조사
- 2 (1) 조였다 (2) 착용했다 (3) 안전모
- 3 ㉠ 안전모를 머리에 꼭 맞게 착용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소단원 1

통합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글 읽기

67~68쪽

- 1 훈맹정음            2 ㉠            3 ㉠, ㉡
- 4 (3) ○            5 ㉠            6 수표
-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점자 규정』 8 ㉠

- 1 한글 점자는 훈민정음의 원리를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에 시각 장애인을 뜻하는 한자 ‘맹’을 넣어 ‘훈맹정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 2 나라마다 사용하는 점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숫자 점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숫자 점자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 3 작은 점들의 개수와 위치로 어떤 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 4 자료 아래에 ‘국립한글박물관 보도 자료’라고 출처가 나와 있다.
- 5 승강기에서 층을 누르는 버튼 옆에 있는 점자 덕분에 시각 장애인도 버튼이 몇 층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 6 숫자가 시작된다는 표시인 ‘수표’를 먼저 써야 한다고 했다.
- 7 글 ㉠의 내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점자 규정』을 활용했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점자 규정』의 ‘점자 일람표’도 활용했다.
- 8 부모님께 여쭙어보기보다는 어떤 기관의 자료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출처인 국립한글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누리집에 들어가서 출처가 바른지 확인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69쪽

- 1 (1) 덕분 (2) 반포 (3) 점자
- 2 (1) 구별하지 (2) 구성되어 (3) 동일한
- 3 ㉠ 그동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소단원 2

기본 이어 주는 말의 쓰임  
알기

70~71쪽

- 1 ㉠            2 ㉡
- 3 따뜻한 물, 쉬어야
- 4 (1) ㉢ (2) ㉠ (3) ㉠
- 5 (1) ㉠ (2) ㉢ (3) ㉠            6 ㉠
- 7 (1) ㉠ (2) ㉠ (3) ㉠            8 ㉢, ㉡
- 9 ㉠ 아침부터 비가 거세게 온다. 그래서 나는 장화를 신고 학교에 간다.

- 1 토요일 아침, 연우는 잠에서 깨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재채기가 나왔다고 했다.
- 2 연우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을까 봐 걱정했다.
- 3 의사 선생님은 연우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꼭 쉬어야 한다고 알려 주셨다.
- 4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될 때,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 될 때, ‘그리고’는 앞뒤 내용이 연결될 때 쓴다.
- 5 먼저 두 문장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 그 의미에 알맞게 이어 주는 말을 넣는다.
- 6 ‘그러나’ 뒤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도화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어울린다.
- 7 상황에 알맞게 이어 주는 말을 넣어 본다.
- 8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면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말하기 좋고,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다.
- 9 이어 주는 말을 상황에 맞게 써서 문장을 만든다.

채점 기준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중 하나를 넣고 앞뒤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쓰면 정답으로 한다.

진도  
교재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72쪽

- 1 (1) 한결 (2) 증상 (3) 으슬으슬
- 2 (1) 잤다 (2) 처방했다 (3) 놓였다
- 3 예 몸이 으슬으슬해서 열을 재고 약을 먹은 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더니 한결 좋아졌다.

## 소단원 2

기본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

73~74쪽

- 1 예 도서관에서 1학년 학생에게 도서 자동 대출 반납기 사용 순서와 방법을 설명해 준 적이 있다.
- 2 전기 안전 규칙 3 ㉔
- 4 ㉑, ㉒, ㉓ 5 예은 6 전기 제품
- 7 ㉔ 8 ㉓

- 1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읽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경험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 수지는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전기 안전 규칙을 알려 주려고 한다.
- 3 수지는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전기 안전 규칙을 알려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4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쓸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 5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써야 한다.
- 6 글의 제목과, '이러한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라는 문장을 통해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7 글 ㉔의 맨 끝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누리집'이라는 출처가 나타나 있다.
- 8 글 ㉑는 전기 안전 규칙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지만, 글 ㉔는 규칙이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되어 있어서 파악하기 쉽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75쪽

- 1 (1) 과열 (2) 제품 (3) 안전
- 2 (1) 고장 (2) 다수 (3) 작동하지
- 3 예 전기 제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안전 규칙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

## 소단원 2

통합 일상생활에서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 쓰기

76쪽

- 1 (2) ○ 2 ㉓ 3 종민
- 4 ㉒

- 1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을 글로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 2 일의 순서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야 한다.
- 3 글의 처음 부분에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글의 가운데 부분에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한다. 글의 끝 부분에는 처음과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간추려 쓴다.
- 4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은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쓴 후에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77쪽

- 1 (1) × 2 상철 3 (1) ㉒ (2) ㉑
- 4 온대 5 ㉓
- 6 (1) 예 기차 여행 (2) 예 가방 (3) 예 즐거움 (4) 예 관광지

- 1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을 써야 한다.
- 2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나 방법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한다.
- 3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일 때 쓰고, '-대'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쓴다.
- 4 감기에 걸려 못 온다는 현지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이므로 '온대'가 알맞다.



- 5 '균형 잡기', '안전모', '건강', '공원'과 관련 있는 말은 '자전거'이다.
- 6 '여행'의 방법, 준비물, 좋은 점, 장소 등을 떠올려 알맞은 말을 써 본다.

**단원 평가**

78~80쪽

- 1 ①                      2 출처                      3 ③
- 4 ②
- 5 2023년 질병관리청의 '올바른 손 씻기' 안내 자료(에 따르면)    6 ㉠                      7 (3) ○
- 8 ㉠ 자료의 출처가 없기 때문이다.
- 9 ④                      10 ②
- 11 점자, 시작된다
-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점자 규정』
- 13 ㉠ 시각 장애인과 세상을 이어 주는 소중한 문자이다.
- 14 ④                      15 그러나                      16 (1) ○
- 17 ④                      18 ㉠
- 19 ㉠ 양말 정리하는 법  
양말은 양말목의 길이와 양말의 색깔, 두께 등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양말은 반으로 접거나 말아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 20 (2) ○

- 1 문장이 짧고 간결해야 이해하기 쉽다.
- 2 자료의 출처를 적어 두어야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썼는지 나중에도 알 수 있다.
- 3 글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는 보통 본문에서 글로 밝히거나 자료 아래에 쓴다.
- 4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르기 →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지르기 → 손가락을 끼고 손가락 사이를 닦기 → 손가락을 마주 잡고 비비기 → 엄지손가락을 돌리며 닦기 → 손톱 밑을 손바닥에 문지르기'의 순서로 손을 닦는다.
- 5 이 글은 2023년 질병관리청의 '올바른 손 씻기'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쓴 글이다.
- 6 출처가 있으면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가져온 곳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

- 7 '자전거를 탈 때에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가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이다.
- 8 글 ㉠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쓰지 않고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없다.
- 9 자료를 가져온 곳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으므로, 글 ㉠에 나온 정보의 출처인 '질병관리청'의 누리집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다.
- 10 승강기에서 층을 누르는 버튼 옆에 있는 점자는 시각 장애인에게 버튼이 몇 층을 가리키는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 11 숫자를 점자로 쓸 때에는 숫자가 시작된다는 표시인 '수표'를 먼저 써야 한다고 했다.
-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점자 규정』을 활용했다.
- 13 점자는 시각 장애인과 세상을 이어 주는 소중한 문자라고 했다.

**채점 기준** 시각 장애인과 세상을 이어 주는 소중한 문자라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4 연우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을까 봐 걱정한 것이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 15 ㉠에는 앞에 일어난 일과 다른 일이 연결될 때 쓰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한다.
- 16 (2)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 되므로 '그래서'를, (3)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므로 '그러나'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17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을 사용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18 ㉠에는 '다수', '과열', '합선' 등의 어려운 낱말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 19 양말의 특징을 고려하며 양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알맞은 제목을 붙여서 양말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순서나 방법이 잘 드러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0 남의 말을 전달할 때에는 '-대'를 사용한다.

진도  
교재

## 매체 단원 온라인 상황에서 글을 써요

### 수행 평가

84쪽

- 1 (3) ○ (5) ○ (7) ○  
 2 예 쿵쿵쿵쿵 **충간 소음**,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  
 충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충간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

## 4. 서로 존중하며 대화해요

### 핵심 확인 문제

86쪽

- 1 (2) ×      2 ○      3 예절  
 4 조용히      5 ㉠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87쪽

- 1 (1) ① (2) ② 2 ③      3 ③  
 4 (1) ○      5 ③      6 ㉠

- 유찬이가 지현이에게는 “국어사전 좀 빌려줄래?”라고 말했고, 선생님께는 “국어사전 좀 빌려주시겠어요?”라고 말씀드렸다.
- 유찬이가 대화 ㉠에서는 지현이에게, 대화 ㉡에서는 선생님께 국어사전을 빌릴 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다.
- 대화 ㉢의 대화 상대는 친구이지만, 대화 ㉣의 대화 상대는 웃어른인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 ㉤는 진영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는 은성이가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 버린 상황이다.
- 진영이는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다.
- 통화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냥 끊지 말고 끝인사를 해야 한다.

### 소단원 1

#### 기본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 알기

88쪽

- 1 (1) ① (2) ② 2 생신, 축하드려요  
 3 (할머니)께, 드릴      4 ③  
 5 예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처음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 (2) ○      7 하영

- 상황 ㉠에서는 진우의 생일을, ㉡에서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고 있다.
-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생신’, ‘축하드려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 세영이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에게’나 ‘한테’ 대신 ‘께’를, ‘줄’ 대신 ‘드릴’이라는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 평소에는 반말을 하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회의나 발표와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발표와 같은 공식적 상황이나, 처음 만난 사이처럼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채점 기준** 발표하는 상황 또는 처음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 나이와 관계없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 나이와 관계없이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소단원 1

#### 기본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기

89~90쪽

- 1 (1) ③ (2) ② (3) ①  
 2 ‘-시-’를 사용했다.      3 ①, ⑤  
 4 ⑤      5 원준      6 (2) ○  
 7 제품이시고요 8 나오셨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9 매진되었어요 10 (2) ○      11 지민  
 12 (1) 인사드리고 (2) 댁 (3) 떡이에요

- 대화 ㉠에서는 친구인 지민의 부모님, ㉡에서는 선생님, ㉢에서는 어머니를 각각 높이고 있다.



- 2 ㉠에서 도영이는 '가니'에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어 지민이의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 3 재희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에게'나 '한테' 대신 높임을 나타내는 '께'를, '물어보다' 대신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여쭙어보다'를 사용했다.
- 4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에는 '다녀올게요'나 '다녀오겠습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5 민수가 '오느' 대신에 '오시는'이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 6 민수의 말에서 '모시러'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다.
- 7 물건인 구두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이시고요'와 같이 높임 표현 '-시-'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
- 8 물건인 커피에 높임 표현 '-시-'를 쓰는 것은 어색하므로,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 9 '매진되셨어요'는 물건을 높인 표현이므로, '-시-'를 쓰지 않고 '매진되었어요'나 '매진되었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 10 물건에 높임 표현 '-시-'를 쓰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 11 글에서 지운이는 '요'를 사용해 글을 읽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높였다.
- 12 ㉠, ㉡은 각각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인사드리고'와 '택'으로 고쳐야 한다. 물건인 떡을 높이는 것은 어색하므로 ㉢은 '떡이에요'로 고쳐야 한다.

- 19 (3) ○    20 ①    21 ①
- 22 반말, 높임말    23 ④
- 24 예 웃어른께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꾸중을 들은 경험이 있다.    25 반말, 범수
- 26 ⑤    27 응?    28 (1) ○

- 1 '진지'는 '밥'의 높임말이다.
- 2 범수는 엄마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3 높임을 표현할 때에는 문장을 '요'로 끝맺거나,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사용한다.

**채점 기준**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 예시 답안과 유사하게 고쳐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식탁은 가구의 한 종류이므로, '가구'는 '식탁'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이다.
- 5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은 상태를 권투 글러브로 맞은 것에 빗대어 표현했다.
- 6 범수는 반말을 하면 할수록 친구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 같아 우쭐해지기까지 해서 반말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 7 엄마와 할머니는 범수의 반말을 고치려고 비밀 모의를 하고 범수에게 높임말을 썼다.
- 8 '배우다'는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라는 뜻이고,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서로 뜻이 반대인 관계이다.
- 9 처음에 범수는 엄마와 할머니의 낯선 말투와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아들이고, 손자인 자기한테 높임말을 쓰는 엄마와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다.
- 10 아드님께 높임말을 못 가르쳤으니 자신부터 고치겠다는 엄마의 말에서 웃어른께는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고치다'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이고, '바로잡다'는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라는 뜻이다.
- 12 ㉡은 왕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범수의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 13 범수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에게 높임말을 해 주니 기분이 좋아서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소단원 1

**통합**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여 대화하기

91~97쪽

- 1 진지    2 사용하지 않고
- 3 예 "밥은 이따가 먹고 싶어요. 저 조금만 더 잘래요."    4 (3) ○
- 5 (몸 여기저기를) 권투 글러브로 맞은 것 같아
- 6 ④    7 ②    8 ④
- 9 ③    10 (1) ○    11 바로잡다
- 12 ⑤    13 ⑤
- 14 예 "오늘 저녁 반찬은 뭐예요?"
- 15 (2) ×    16 ⑤    17 ①, ④
- 18 예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

14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는 문장을 ‘-습니다’나 ‘요’로 끝맺는다.

**채점 기준**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 예시 답안과 유사하게 고쳐 쓰면 정답으로 한다.

15 ‘아드님은’이라고 했지 ‘아드님께서는’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높임을 나타내는 ‘께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16 엄마에게 하는 말이므로 ‘요’로 문장을 끝내고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써서 ‘저는 떡갈비가 먹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알맞다.

17 할머니는 엄마가 아들인 범수에게 높임말을 하는데, 범수는 엄마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호통을 쳤다.

18 범수는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엄마를 보고 기분이 상해서 먼저 마트를 나가 버렸다.

**채점 기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19 엄마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했고,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분’과 ‘어르신’, ‘말씀하다’를 사용했다.

20 범수의 기분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을 물감이 뒤섞여 범벅이 된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21 엄마가 아들인 범수를 높여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사범님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22 태권도장에 있던 아이들은 범수는 엄마한테 반말을 하는데, 범수의 엄마는 범수한테 높임말을 쓰는 모습을 보고 킁킁대며 수군거렸다.

23 범수는 태권도장에서도 자신에게 높임말을 쓰는 엄마가 부끄러웠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범수를 놀리자 화가 났다.

24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듣거나, 내가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했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잘못된 높임 표현을 듣거나 사용한 경험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25 범수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자기한테 다시 반말을 쓰고 ‘범수’라고 불러 달라고 사정을 했다.

26 범수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높임말을 잘 쓰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27 ‘응?’은 반말이므로 ‘네?’와 같이 고쳐야 한다.

28 이 이야기는 대화할 때 예의 바르게 말하고,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98쪽

- 1 (1) 지그시 (2) 마뜩잖다 (3) 진지
- 2 (1) 우쭐하며 (2) 머뭇거렸다 (3) 상냥한
- 3 예 엄마는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놀기만 하는 나를 마뜩잖은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 소단원 2

### 기본 대화 예절의 중요성 알기

99쪽

- 1 예 책 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 2 (1) ① (2) ②
- 3 예 소영이는 동호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4 ④

1 효진이와 소영이는 동호에게 책을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2 효진이는 동호를 ‘야!’라고 불렀고, 소영이는 ‘동호야.’라고 불렀다.

3 동호를 존중하지 않고 말하는 효진이와 달리, 소영이는 동호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소영이는 동호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4 대화할 때 예절을 지키면 기분 좋게 대화하며 서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와 좋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고, 대화를 나누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00쪽

- 1 (1) 부탁 (2) 거절 (3) 통명스레
- 2 (1) 반납했다 (2) 명령했다 (3) 한가득
- 3 예 형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소단원 2

기본 상황에 알맞은 대화 예절 알기

101~102쪽

- 1 ㉓                      2 (1) ㉒ (2) ㉑ 3 경수  
 4 ㉕                      5 (2) ○                  6 ㉖  
 7 예 태수의 말이 모두 활동과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8 ㉔  
 9 ㉒                      10 상대, 자신          11 (3) ○  
 12 ㉔

- 1 주현이는 대화 가와 나 모두에서 큰 목소리로 지환이를 불렀다.
- 2 주현이의 큰 목소리에 대화 가와 나에서 지환이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 3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말해야 하므로 지환이가 운동장에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 4 대화 상황은 대화하는 상대, 시간이나 장소, 대화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대화 예절을 지켜야 한다.
- 5 할아버지가 태수에게 가위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태수가 할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 6 할아버지는 태수의 자세와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 7 조사할 공공 기관을 정하려고 모두 활동을 하는 중에 태수가 모두 활동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태수의 말이 모두 활동과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때에는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9 친구들이 귓속말을 할 때 태수는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 10 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 11 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통화하기 괜찮은 상황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대의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12 통화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럼 내일 보자. 안녕.'과 같이 끝인사를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03쪽

- 1 (1) 주제 (2) 귓속말 (3) 공공장소  
 2 (1) 공손한 (2) 집중하고 (3) 소외감  
 3 예 도서관은 공공장소이므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진도  
교재

소단원 2

통합 상황에 알맞은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기

104쪽

- 1 (1) 친구 (2) 어머니                      2 가  
 3 (1) ㉑ (2) ㉒                                  4 예림  
 5 예 다이나, 나 은혜야.                      6 (3) ○  
 7 ㉓, ㉔

- 1 상황 가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고, 나 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다.
- 2 상황 가는 친구와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전화 대화를 하는 상황이다.
- 3 상황 가는 전화로 나누는 대화 상황이고, 나 는 어머니와 직접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 상황이다.
- 4 전화를 끊기 전에 끝인사를 해야 한다.
- 5 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채점 기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를 확인하는 말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6 어머니와 대화할 때에는 공손한 태도로 말해야 하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
- 7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 또, 대화하는 상대가 웃어른일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공손하게 대화해야 한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05쪽

- 1 (1) ○ (4) ○ 2 수민                      3 ㉕  
 4 예 친구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들겠다.  
 5 (1) ㉒ (2) ㉑ 6 (1) 가위 (2) 개구리

- 1 ‘밥’, ‘생일’이 아니라 ‘진지’, ‘생신’이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다. 그리고 대화 상황에 맞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
- 2 여럿이 놀 때 귓속말을 하면 다른 친구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 4 상황에 알맞은 대화 예절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싶은 대화 예절을 쓴다.

**채점 기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대화 예절을 한 가지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방언은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표준어와는 달리, 어느 한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다.
- 6 ‘가위’의 방언으로는 ‘가우’, ‘가새’, ‘가시개’ 등이 있고, ‘개구리’의 방언으로는 ‘개구락지’, ‘까구리’, ‘깨구리’ 등이 있다.

## 단원 평가

106~108쪽

- |   |                              |
|---|------------------------------|
| 1 (1) <b>나</b> (2) <b>가</b> 2 <b>나</b>                    | 3 여쭙어보자                      |
| 4 아버지, 할아버지   | 5 <b>㉠</b>                   |
| 6 <b>예</b> 떡과 같은 물건에 높임 표현 ‘-시-’를 쓰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                              |
| 7 <b>예</b> 잡수시면, 드시면                                      |                              |
| 8 <b>예</b> 할머니, 잘못했어요. 손자님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세요.                 |                              |
| 9 (1) 선생님이 너 오래. (2) <b>예</b> 선생님께서 너 오래 하셔.              |                              |
| 10 <b>㉢</b>   | 11 <b>㉠</b>                  |
| 12 강호   |                              |
| 13 <b>㉠</b>   | 14 (1) <b>㉡</b> (2) <b>㉠</b> |
| 15 (1) <b>가</b> (2) <b>나</b> 16 (1) <b>㉡</b> (2) <b>㉢</b> |                              |
| 17 <b>㉣</b>   | 18 <b>㉡</b>                  |
| 19 <b>예</b> 상대가 통화하기 괜찮은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20 끝인사                       |

- 1 대화 **가**는 친구끼리 대화를 나누는 비공식적 상황이고, **나**는 학급 회의를 하는 공식적 상황이다.
- 2 대화 **나**는 학급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소에는 반말을 하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회의나 발표와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3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물어보다’ 대신 ‘여쭙어보다’와 같이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 4 ‘께서’, ‘오시는’, ‘모시러’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고, ‘요’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다.
- 5 고객을 높이기 위해 ‘주문하신’이라고 한 것은 알맞지만, 커피를 높이기 위해 ‘-시-’를 쓴 것은 잘못된 높임 표현이다.
- 6 물건인 ‘떡’에는 ‘-시-’를 붙이지 않고 ‘떡이에요.’로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떡에 높임 표현 ‘-시-’를 쓰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라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 7 ‘먹으면’을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잡수시면’ 또는 ‘드시면’으로 고쳐 써야 한다.
- 8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사용하고,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는다.

**채점 기준**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 예시 답안과 유사하게 고쳐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께서’와 ‘-시-’를 사용해서 높임 대상인 선생님을 높여야 한다.
- 10 음식과 같은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음식 나왔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 11 동호는 효진이가 명령하듯이 책을 들어 달라고 말해서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 12 대화 **나**에서 소영이는 동호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 13 친한 사이일지라도 상대가 웃어른이거나 공식적 상황이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14 대화 **가**는 태수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고, **나**는 태수가 친구 혜진이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다.
- 15 대화 **가**에서 태수는 할아버지께 공손하지 못한 자세와 말투로 말했고, **나**에서 태수는 모듬 활동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다.
- 16 태수가 각 대화 상황에서 어떤 대화 예절을 지키지 못했는지 생각하며 알맞은 조언을 골라 본다.



- 17 전화 대화는 매체를 이용해 소리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표정과 몸짓은 사용할 수 없다.
- 18 전화를 걸면 용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 19 전화 대화는 상대를 볼 수 없으므로 상대가 통화하기 괜찮은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대가 통화하기 괜찮은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0 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기보다는 끝인사를 하고 끊어야 한다.

## 5. 사전으로 여는 세상

### 핵심 확인 문제 110쪽

- 1 ○                      2 움직임                      3 (1) ×
- 4 다                        5 친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11쪽

- 1 ②                      2 ④                      3 전구
- 4 세준
- 5 예 빛과 관련이 있어.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나 방 안에 불을 켜서 환할 때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어둡다'와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야.

- 1 옛날부터 사람들이 집에서 길렀던 동물로, 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은 '소'이다.
- 2 '소'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음매!" 하고 운다는 내용이다.
- 3 제시된 설명과 어울리는 낱말은 '전구'이다.
- 4 세준이가 설명하고 있는 낱말은 '켜다'가 아니라 '열다'이다.
- 5 '밝다'와 관련이 있는 말이나 '밝다'라는 낱말이 주는 느낌 등과 같이 '밝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밝다'라는 낱말을 떠올릴 수 있으면 정답으로 한다.

### 소단원 1 기본 낱말의 종류 알기 112쪽

- 1 ①, ③                      2 (3) ○                      3 예 빨라
- 4 ⑤                        5 움직임
- 6 (1) ②    (2) ①    (3) ③
- 7 (1) ㉠, ㉡, ㉢    (2) ㉣, ㉤, ㉥    (3) ㉦, ㉧, ㉨

- 1 '운동장', '축구공'과 같이 '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2 '그리고 뭐 했어?' 놀이를 할 때에는 '뛰다', '차다', '마시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써야 한다. 또한 희선이는 물을 마신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해야 한다.
- 3 빈칸에는 기차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 들어가야 한다. 단, '길다'는 앞에 언급되었으므로 제외한다.
- 4 '학교', '교실', '친구', '연필'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고, '쓰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 5 '떡다', '던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 6 '울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칠판'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무섭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7 낱말에는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 있다. 낱말의 종류를 생각하여 나누어 본다.

### 소단원 1 기본 형태가 바뀌는 낱말 알기 113쪽

- 1 높                        2 ②                        3 (2) ○
- 4 ㉠                        5 (1) 낮    (2) 낮다
- 6 짧다
- 7 (1) 예 잡고    (2) 예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갔다.

- 1 '높다', '높고', '높으면'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높'이다.
- 2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 낱말의 기본형을 만든다.

- 3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모두 국어사전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형을 정해야 한다.
- 4 낱말의 기본형을 만들 때에는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을 나눈 다음,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다.
- 5 ‘낮고’, ‘낮아서’, ‘낮으니’, ‘낮으면’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낮’이고, ‘낮’에 ‘-다’를 붙인 ‘낮다’가 기본형이다.
- 6 ‘짧고’, ‘짧아서’, ‘짧으니’, ‘짧으면’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짧’에 ‘-다’를 붙여 기본형 ‘짧다’를 만든다.
- 7 기본형인 ‘잡다’를 ‘잡고’, ‘잡아서’, ‘잡으니’, ‘잡으면’ 등 다양한 형태로 바꾸고, 바꾼 낱말을 넣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써 본다.

**채점 기준** 낱말의 형태를 바꾸고, 낱말의 의미와 바꾼 낱말의 형태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소단원 1

**통합** 기준에 따라 낱말 분류하기

114~115쪽

- 1 ⑤                      2 ④                      3 ①, ②
- 4 예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고,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다.
- 5 ④                      6 (2) ○                      7 ③
- 8 (1) 웃다, 즐겁다, 슬프다 (2) 칠판, 침대

- 1 ‘나’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두려움’이라는 낱말을 먹었다.
- 2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낱말을 먹었을 때 ‘나’는 설 새 없이 웃었다.
- 3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은 ‘칠판’, ‘침대’이다. ‘울다’, ‘흐르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고, ‘괴롭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4 ‘나’는 ‘사랑’이라는 낱말이 참 좋았고, 그 낱말을 먹은 날은 모든 사람을 안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낱말을 먹으면 어떠할지 상상해 본다.

**채점 기준** ‘사랑’이라는 낱말의 의미에 어울리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아무 낱말도 먹지 않기로 결심하자 ‘나’는 텅 빈 마음을 느꼈다. 그래서 낱말을 모두 먹어 버리기로 했다.
- 6 낱말이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
- 7 ‘초콜릿’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 8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 낱말은 ‘웃다’, ‘즐겁다’, ‘슬프다’이고,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 없는 낱말은 ‘칠판’, ‘침대’이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16쪽

- 1 (1) 양껏 (2) 결심 (3) 감정
- 2 (1) 일부분 (2) 온종일 (3) 분노
- 3 예 앞으로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자고 결심했다.

## 소단원 2

**기본**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 알기

117쪽

- 1 예 학교에 ‘보건실’이 있는데 ‘보건’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 2 (1) ㄱ (2) ㅏ (3) ㅞ (4) ㅓ (5) ○
- 3 가방, 교실, 하루, 학교
- 4 (1) ㅊ (2) ㅓ (3) ㄴ (4) ㄱ (5) ㅊ
- 5 ④
- 6 예 어떤 기운이나 마음 따위가 자리를 잡아 가득하게 되다.

**채점 기준**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낱말을 보고 그 뜻이 궁금했던 경험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 첫 번째 글자인 ‘가’의 짜임과 두 번째 글자인 ‘방’의 짜임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써 본다.
- 3 국어사전에는 ‘가방’, ‘교실’, ‘하루’, ‘학교’의 차례대로 실려 있다.
- 4 국어사전에 낱말을 신는 차례를 생각하며 낱말을 이루는 글자의 짜임을 살펴본다.



- 5 '깃든'처럼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때에는 낱말의 기본형을 찾아야 하므로 '깃들다'를 찾아야 한다.
- 6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며 '깃들다'의 뜻을 찾아본다.

**채점 기준**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채점 기준** 낱말이 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고려하여 뜻을 짐작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국어사전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낱말의 뜻을 알게 되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 2** **통합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글 읽기** 118~119쪽

1 (2) ○      2 지도      3 석훈  
 4 예 아직 알지 못함.      5 ㉠  
 6 ㉡  
 7 (1) 예 바깥 부분. (2) 예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      8 (2) ○

- 1 인간은 잘 모르거나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 여행을 하고,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보물섬이나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모험을 하기 때문에 지도가 만들어지고 지리적 지식이 생겨났다.
- 2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온 인간들에게 좋은 길잡이이자, 탐험의 성과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결과물은 '지도'를 가리킨다.
- 3 '미지'를 '익숙한'으로 바꾸면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
- 4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며 '미지'의 뜻을 찾아 확인해 본다.

**채점 기준**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사람들이 땅속 세계에 관심을 갖고 답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땅속을 이루는 암석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
- 6 해저 지도, 해류의 흐름을 나타낸 지도, 수온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가 바다와 관련 있는 지도이다.
- 7 '표면'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보거나 앞뒤 문장을 살펴보고 뜻을 짐작한 다음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을 찾아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20쪽

1 (1) 성과 (2) 표면 (3) 길잡이  
 2 (1) 답사 (2) 분포 (3) 미지  
 3 예 우리 반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합창 대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21쪽

1 ㉢      2 ㉣  
 3 (1) 예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2) 예 일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  
 4 예 놀이 방법을 보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와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5 솜니불  
 6 ㉢      7 (1) 맨님 (2) 눈노기  
 8 (1) ㉡ (2) ㉠

- 1 '맛있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2 ㉣'무섭다'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 아니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3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을 떠올리며 '보건'과 '휴무'의 뜻을 찾아본다.

**채점 기준**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경험을 써 본다.
- 채점 기준**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경험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솜이불'처럼 받침 뒤에 '이'가 오면 'ㄴ' 소리가 더해져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솜니불]이 올바른 발음이다.
- 6 '담요'처럼 받침 뒤에 '요'가 오면 'ㄴ' 소리가 더해져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뇨]로 발음된다.

- 7 받침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오면 ‘ㄴ’ 소리가 더해져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맨닙], [눈노기]로 발음한다.
- 8 ‘마무리’는 ‘일의 끝맺음.’, ‘갈무리’는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함.’이라는 뜻이다.

## 단원 평가

122~124쪽

- 1 ㉔                    2 멧있어
- 3 (1) ㉒, ㉓ (2) ㉔, ㉕ (3) ㉖, ㉗
- 4 (1) 예 낱개 (2) 예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 5 먹                    6 ㉔
- 7 (1) 설레 (2) 설레다                    8 ㉓
- 9 예 매고, 매서, 매니, 매면
- 10 예 운동화 끈을 꼭 매고 달렸다.
- 11 준우                12 (1) ㉔ (2) ㉓                13 ㉕
- 14 (1) 예 노래 (2) 예 춤추다 (3) 예 즐겁다
- 15 (1) 가을 (2) 사자 (3) 갈래
- 16 (1) ㉔ (2) ㉓
- 17 예 지도는 인간들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탐험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18 ㉓
- 19 (1) 예 친구들의 마음 지도 (2) 예 친구들이 행복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고, 친구들이 속상하거나 슬플 때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0 예 ‘매고’의 기본형인 ‘매다’를 찾아야 한다.  
먼저, 첫 번째 글자인 ‘매’를 찾는다. 첫 자음자인 ‘ㅁ’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모여 있는 부분을 찾고, 이어지는 모음자는 ‘ㅐ’이므로 ‘매’로 시작하는 낱말들이 있는 부분을 찾는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 글자인 ‘다’의 첫 자음자 ‘ㄷ’을 찾고, 이어지는 모음자 ‘ㅏ’를 찾는다.

- 1 빈칸에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앉다’는 적절하지 않다.
- 2 ‘……은/는 어때?’ 놀이를 할 때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을 써야 한다. 그리고 빈칸 뒤에 ‘멧있으면 내 친구.’라고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멧있어’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3 ‘축구공’, ‘자전거’는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마시다’, ‘던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뜨겁다’, ‘빠르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4 독수리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쓰고, 그 낱말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인 ‘깃털’,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인 ‘날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인 ‘날카롭다’ 등을 떠올릴 수 있다.
- 5 ‘먹고’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먹’이다. 낱말 ‘먹다’는 문장 속에서 쓰임에 따라 ‘먹고’,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등으로 형태가 바뀐다.
- 6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모두 국어사전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대표 낱말인 기본형을 신는다. ‘막고’, ‘막으면’, ‘막으니’, ‘막아서’의 기본형은 ‘막다’이다.
- 7 ‘설레고’, ‘설레서’, 설레니’, ‘설레면’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설레’이고,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완성된다.
- 8 ‘잡고’, ‘잡아서’, ‘잡으니’, ‘잡으면’에서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잡’이고, 여기에 ‘-다’를 붙인 ‘잡다’가 기본형이다.
- 9 낱말의 기본형을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본다.
- 10 ‘매다’의 형태를 바꾼 낱말 중 하나를 골라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

**채점 기준** 만든 낱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낱말의 의미와 형태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1 새로운 낱말을 사용하면 자신이 느낀 감정을 보다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12 ‘사랑’이라는 낱말을 먹었을 때는 참 좋았고 모든 사람을 안아 주고 싶었지만, ‘분노’라는 낱말을 먹었을 때는 내내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다.
- 13 ‘사랑’, ‘분노’, ‘배’, ‘초콜릿’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로,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 없는 낱말이다.
- 14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낱말을 여러 가지 떠올려 보고, 낱말의 종류별로 하나씩 써 본다.
- 15 (1)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를 살펴보면 ‘나라’는 ‘ㄴ’으로 시작하고 가을은 ‘ㄱ’으로 시작하므로 ‘가을’을 먼저 신는다.  
(2) 첫 번째 글자의 모음자를 살펴보면 ‘사자’는 ‘ㅏ’, ‘소리는 ‘ㅓ’이므로 ‘사자’를 먼저 신는다.

(3) 첫 번째 글자의 받침을 살펴보면 '강조'는 받침이 'ㅇ', '갈래'는 받침이 'ㄹ'이므로 '갈래'를 먼저 신는다.

16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정확한 뜻을 찾아본다.

17 ㉔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인간의 탐험을 통해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18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를 살펴보면 'ㅂ'으로 시작하는 '바다'를 가장 먼저 신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자신은 어떤 지도를 왜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지도를 떠올리고, 만들고 싶은 까닭을 함께 쓰면 정답으로 한다.

20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매고'는 기본형이 아니므로 기본형인 '매다'를 찾아야 하고,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 모음자를 찾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글자도 찾는다.

**채점 기준** 낱말의 기본형을 찾고, 낱말을 이루는 글자의 짜임인 낱자의 차례대로 찾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6. 감상과 표현의 즐거움

### 핵심 확인 문제

126쪽

- 1 ○                      2 표정                      3 (2) ○  
4 관련                      5 이유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27쪽

- 1 한글                      2 ⑤                      3 (2) ○  
4 예 학교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자는 글을 써서 낸 적이 있다.

- 윤술이는 세종 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과 관련 있는 영화를 보았다.
- 윤술이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3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글은 작품을 감상한 사람이 느낀 재미나 감동이 잘 드러난다.

4 책이나 영화를 보고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경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 본 경험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작품을 감상하고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경험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 본 경험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진도  
교재

### 소단원 1

기본 작품을 감상하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경험 말하기

128쪽

- 1 「레오의 특별한 꿈」                      2 ⑤  
3 (1) ① (2) ②                      4 다름

- 친구들은 1학기 때 교과서에서 읽은 「레오의 특별한 꿈」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민지는 마법사에게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델'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레오의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 세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까닭을 말하고 있고, 하빈이는 작품을 보고 든 생각을 바탕으로 까닭을 말하고 있다.
- 친구들은 같은 작품을 보고도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29쪽

- 1 (1) 특별 (2) 감상 (3) 제시  
2 (1) 감동 (2) 신비한 (3) 안쓰럽게  
3 예 유진이는 나에게 특별한 친구이다.

### 소단원 1

통합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만화 영화 감상하기

130쪽

- 1 비상벨                      2 ②                      3 (3) ○  
4 예 건전지 엄마가 아이들을 구하고 집으로 가시기 건전지들을 안아 줄 때 행복한 표정이 느껴져서 나도 덩달아 행복했다.

- 1 건전지 엄마는 타는 냄새를 맡자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고 힘껏 비상벨을 울렸다.
- 2 건전지 엄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다.
- 3 건전지 엄마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이는 인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주제나 교훈을 떠올리며 감상한 것이다.
- 4 이 만화 영화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그 까닭과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건전지 엄마」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그 까닭과 함께 쓰면 정답으로 한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1쪽

- 1 (1) 무사히 (2) 화재 (3) 비상벨
- 2 (1) 감지했다 (2) 무릅쓰고 (3) 대피해서
- 3 예 기사가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내할 것입니다.

## 소단원 1

**통합**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드라마 감상하기

132쪽

- 1 인선                      2 ④
- 3 예 맛있는 치킨을 신비에게 양보하는 기동이의 모습에서 배려심을 느꼈다.
- 4 (1) 신통방통하다 (2) 단짝 (3) 밀창

- 1 용용이가 마법으로 준 ‘니 맘 내 맘 계산기’를 이용해서 신비가 친구들과 가족의 진심을 깨닫고 반성했다고 했다.
- 2 신비는 자신이 가져온 과자를 친구들이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먹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 3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써 본다.

**채점 기준** 기동이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낱말의 뜻을 바르게 알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3쪽

- 1 (1) 주변 (2) 인심 (3) 반성
- 2 (1) 자기중심적 (2) 양보해서 (3) 진심
- 3 예 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소단원 2

**기본**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

134~135쪽

- 1 「신통방통 니 맘 내 맘 계산기」 2 ⑤
- 3 이해, 처지            4 ③, ⑤                      5 (2) ×
- 6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7 ④, ⑤
- 8 문제 상황, 뒷받침
- 9 (1) 예 아침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놀람기를 하면 좋겠다.  
(2) 예 놀람기를 하면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 1 드라마 「신통방통 니 맘 내 맘 계산기」를 보고 이 글을 썼다.
- 2 글 ①에 우리 주변에도 상대의 마음을 모른 채 오해해 상대와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3 글 ②의 첫 문장에 글쓴이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4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마음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주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 5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6 급식 시간에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7 글쓴이가 ‘첫째’, ‘둘째’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본다.
- 8 의견은 주제나 문제 상황에 어울려야 하고, 이유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 9 체력을 기르는 방법을 한 가지 떠올려 보고, 그 의견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의견과 타당한 이유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6쪽

- 1 (1) 골고루 (2) 처지 (3) 편식
- 2 (1) 헤아려 (2) 공급 (3) 갈등
- 3 예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소단원 2**

**기본**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고쳐 쓰는 방법 알기

137쪽

- 1 ④                      2 다
- 3 예 의견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 4 예 둘째, 달리기를 매일 하면 체력도 길러지고 건강해진다. 온몸의 다양한 근육을 쓰고 심장과 폐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 5 ①                      6 (2) ○

- 1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썼다.
- 2 주제나 문제 상황에 어울리는 의견을 썼는지, 의견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를 썼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의견과 그 이유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 3 자신이 달리기를 가장 잘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기를 하자는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채점 기준** 의견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로 고쳐 쓴다.

**채점 기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은 이유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이유를 꼭 세 가지 이상 써야 할 필요는 없다.
- 6 의견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의견이나 이유를 고쳐 의견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소단원 2**

**통합**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고쳐 쓰기

138쪽

- 1 ④
- 2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 3 ⑤
- 4 (1) 예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2) 예 친구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자.  
(3) 예 나쁜 말을 쓰면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 5 ㉞

- 1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야 한다.
- 2 학교 안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떠올려 쓴다.
- 3 걸어 다니자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으면 좋은 점을 떠올려 이유로 들 수 있다.
- 4 먼저 문제 상황을 떠올린 뒤,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맞게 써 본다.

**채점 기준** 학급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쓰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자신의 의견이 친구의 의견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39쪽

- 1 ②                      2 이슬                      3 갈게
- 4 ②                      5 ④                      6 조아쓸겘
- 7 (1) 볼까 (2) 찾아볼게

- 1 같은 이유를 여러 번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 다.
- 2 작품 속 인물의 생각이나 마음을 짐작해 보거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재미나 감동을 잘 느낄 수 있 다.
- 3 ‘갈게’는 [갈께]로 소리 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다.
- 4 ‘먹을까’처럼 묻는 말에서는 ‘까’를 소리 나는 대로 쓴 다.
- 5 ① ‘늦을꼬’, ② ‘일어날겘’, ③ ‘줍을꼬’, ⑤ ‘할게’가 바른 표기이다.

진도  
교재

- 6 '좋았을걸'은 [조아쓸겘]로 발음한다.
- 7 '볼까'처럼 묻는 말에서 '까'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찾아볼게'는 [차자볼께]로 소리 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다.

## 단원 평가

140~142쪽

- 1 (1) ○
- 2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자 진짜 '델'이 생긴 장면      3 ⑤      4 ⑤
- 5 (2) ○      6 ④
- 7 예 인물의 실감 나는 표정이나 말투에 유의하며 본다.      8 ⑤
- 9 예 항상 신비를 먼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 10 ③      11 갈등      12 ⑤
- 13 (3) ○      14 ④      15 ㉠, ㉡
- 16 도움      17 운동량, 체력
- 18 예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 하면 좋겠다.      19 (2) ○
- 20 예 교실이 더러우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1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글을 쓴 경험이다.
- 2 하빈이는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자 진짜 '델'이 생긴 장면이 감동적이라고 했다.
- 3 같은 작품을 보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 4 건전지 엄마는 타는 냄새를 맡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비상벨을 울렸다.
- 5 건전지 엄마는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대피하도록 하기 위해 비상벨을 울린 것이다.
- 6 아이들을 무사히 구한 건전지 엄마는 뿌듯한 마음일 것이다.
- 7 이 밖에도 분위기를 생생하게 해 주는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에 집중하며 보거나, 인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주제나 교훈을 떠올리며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인물의 표정이나 말투에 유의하며 보기,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에 집중하며 보기, 주제나 교훈을 떠올리며 보기 등의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신비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과자를 가져왔는데 친구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실망했다.
- 9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써 본다.

**채점 기준** 아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0 '단짝'은 서로 뜻이 맞거나 매우 친해 늘 함께 어울리는 친구를 말한다.
- 11 글쓴이는 우리 주변에도 상대의 마음을 모른 채 오해해 상대와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고 했다.
- 12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13 자신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쓴 부분이 다.
- 14 급식 시간에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15 ㉠은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은 글쓴이의 의견이다.

- 16 의견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 17 요즘 운동량이 부족해서 체력이 약한 어린이가 많은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18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채점 기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9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20 교실에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서 쓴다.

**채점 기준** 교실에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이유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 경험과 관련지으며 이해해요

#### 단원 평가 1회

2~3쪽

- 1 은행잎            2 ㉔            3 경아
- 4 ㉓                5 (2) ㉑        6 ㉕
- 7 (1) ㉑ (2) ㉓ (3) ㉒        8 ㉓
- 9 헛발질
- 10 예 호랑이 발톱을 잘 피하는 개미 때문에 호랑이가 더 화가 났다.

- 1 시에서 말하는 이는 이사 간 친구에게 은행잎을 편지처럼 띄워 보내고 있다.
- 2 시에서 말하는 이는 친구에게 갑자기 헤어지게 되어 속상하고 그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 3 시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경험을 떠올린 친구는 경아이다.
- 4 ‘평범하다’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를 뜻한다. ㉑은 ‘특별하다’, ㉒는 ‘훌륭하다’, ㉔는 ‘모자라다’, ㉕는 ‘형편없다’의 뜻이다.
- 5 (2)는 식물을 직접 키워 본 경험을 말한 것이므로 이 글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다.
- 6 생각이 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친구와 계속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7 듣기 전에 할 일, 듣기 중에 할 일, 들은 후에 할 일을 각각 떠올려 본다.
- 8 호랑이는 개미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통에 도저히 개미를 잡을 수가 없었다.
- 9 겨냥이 맞지 아니하여 빗나간 발길질을 ‘헛발질’이라고 한다.
- 10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맞게 간추려 본다.

**채점 기준** 호랑이가 발톱을 세워 들고 개미를 잡으려 했다가 발톱을 잘 피하는 개미 때문에 호랑이가 더 화가 났다는 등 제시된 내용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맞게 요약해 쓰면 정답으로 한다.

#### 단원 평가 2회

4~5쪽

- 1 (1) ㉑ (2) ㉒                                    2 ㉕
- 3 예 ‘좋은 추억 생각해 보기’란 약을 / 마음에 풀어서 / 마시는 거야.
- 4 슬그머니
- 5 예 태권도를 잘하는 같은 반 친구가 부러웠다. 나는 항상 2등을 해서 속상했다.
- 6 ㉔                                    7 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함.
- 8 ㉕
- 9 예 맛이 고소하고 씹을수록 약간의 단맛이 난다.
- 10 예 울릉도 주변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서 전복,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산물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

- 1 맘속에 벽이 있으면 화만 나고 답답하다고 했고, ‘피식’ 웃음소리 나오면 그게 벽 부서지는 소리라고 했다.
- 2 마음의 벽을 없애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라는 약을 마음에 풀어서 마시라고 했다.
- 3 마음의 벽을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본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났던 일이 있었을 때 해결했던 경험을 담아 시의 형태로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슬그머니’는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라는 뜻이다.
- 5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경험을 찾고, 그것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떠했는지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이야기 속 인물처럼 친구가 부러웠거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과 함께 쓰면 정답으로 한다.

- 6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 7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 질문에 맞는 대답을 정리해 본다. 친구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에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 8 홍천 옥수수에는 달고 쫄쫄득득한 맛을 자랑한다고 했다.
- 9 울릉도 오징어를 말리면 맛이 고소하고 씹을수록 약간의 단맛이 나서 맛있다고 했다.

10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찾아보며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인상 깊은 내용을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서술형 평가

6쪽

- 1 예 작년 여름에 가족들과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구경하며 즐겁게 물놀이를 했다.
- 2 (1) 예 1학년 때 친구와 있었던 일이다.  
(2) 예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에 상처를 입었다.  
(3) 예 속상하고 화가 나서 친구랑 놀고 싶지 않았다.  
(4) 예 친구에게 마음을 말하고 사과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 3 예 생각이 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친구와 계속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함.
- 4 (1) 예 개미들이 나타나 호랑이 털 속으로 들어감.  
(2) 예 호랑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지쳐 쓰러짐.

1 물놀이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했는지 쓴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물놀이하기'와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려 쓰고, 쓴 내용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했는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6점 |
| '물놀이하기'와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려 쓰고, 쓴 내용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했는지 중에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점 |

2 시에 드러난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4)를 모두 알맞게 쓴 경우     | 12점 |
| (1)~(4) 중 세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9점  |
| (1)~(4)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1)~(4)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3점  |

3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릴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생각이 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친구와 계속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쓴 경우 | 6점 |

4 개미 떼가 나타나 호랑이 털 속으로 들어갔고, 호랑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개미들이 나타나 호랑이 털 속으로 들어갔다고 쓰고, (2)에 호랑이가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지쳐 쓰러졌다고 쓰는 등 (1)과 (2)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도록 쓴 경우 | 6점 |

## 수행 평가

7쪽

- 1 예 고장의 자랑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2 (1) 예 질기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2) 예 달고 고소하며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3 (1) 예 우리나라 고유의 방법으로 만든 종이 한지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  
(2) 예 전주 한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1 글에 나온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고장의 자랑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쓴 경우 | 10점 |

2 각 인물이 자신이 고장의 자랑거리인 이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 파악하여 정리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질기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쓰고, (2)에 달고 고소하며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쓴 경우 | 10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5점  |

3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쓴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글의 내용 가운데 인상 깊은 내용을 쓰고, (2)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쓴 경우 | 10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5점  |

## 2. 유창하게 읽고 발표해요

### 단원 평가 1회

8~9쪽

- 1 ㉔                      2 (1) ㉔ (2) ㉔  
 3 예 나무로 만든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여름인데도 정말 시원했다.  
 4 ㉔                      5 (2) ○                      6 ㉔  
 7 (1) ㉔ (2) ㉔ 8 (2) ○                      9 ㉔  
 10 (1) ×

- 이 글에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물건을 소개하고 있다.
- ‘대들보’와 ‘서까래’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
-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고 든 생각을 쓴다.

**채점 기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경험에 비추어 글을 읽고 든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한 글자씩 천천히 읽는 것보다는 적절한 속도로 읽어야 한다.
- 잔뜩 기대하고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기대와 달리 볼품없는 쇠구슬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께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으므로, 실망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담아 읽어야 한다.
- 제시된 부분의 내용은 많은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서 에스더가 치료해 주는 상황이다.
- 사람들은 병에 걸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고양이 그림을 걸어 놓았고, 에스더는 미신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다.
- 에스더가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에스더를 향한 고맙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읽는다.
- 주민 등록 번호 뒷부분의 맨 첫 숫자가 1, 3이면 남자이고, 2, 4면 여자이다.
- 글과 그림을 모두 활용하면 이해하기 쉽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 단원 평가 2회

10~11쪽

- 1 (1) ㉔ (2) ㉔ 2 ㉔                      3 문장  
 4 동주                      5 ㉔  
 6 예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목소리로 읽는다.  
 7 ㉔                      8 민선                      9 ㉔  
 10 (2) ○

- 버드나무 껍질로는 열을 내리고 통증을 달래 주는 약을 만들고, 은행나무잎으로는 피를 잘 돌게 하는 약을 만든다.
-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특히 사람이 먹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한다고 했다.
-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는다.
- 할아버지께 예상치 못한 생일 선물을 받은 상황이므로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어울린다.
- 갑자기 생일 선물을 받게 된 상황이므로 감격하고 고마운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투나 표정,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 읽을 때에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실감 나게 읽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읽는다. 또한,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목소리로 읽는다.

**채점 기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실감 나게 읽는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읽는다.’,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목소리로 읽는다.’ 중 한 가지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에스더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치료해 주었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일한 것으로 보아, 배려심 있고 의지가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자신을 치료해 준 에스더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기쁜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읽는 것이 장면의 분위기에 어울린다.
- 자동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동차마다 다른 번호판을 단다고 했다.
- (1) 제목의 글자 모양을 본문과 다르게 했다.  
(3) 자동차 번호판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 서술형 평가

12쪽

- 1 예 오늘은 강토의 생일인데, 엄마가 강토의 생일을 잊으셨다.
- 2 예 강토의 생일을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란 표정과 미안한 목소리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읽는다.
- 3 (1) 예 우리 반 유현민  
(2) 예 학급 신문의 어린이 소개 부분
- 4 예 1번 지역에서 출발해서 2번 지역에 도착하는 버스이다.
- 5 (1) 예 제목에서 '버스 번호'라는 글자의 색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2) 예 그렇게 하면 '버스 번호'에 관한 내용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글의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엄마가 강토의 생일을 잊었고, 강토는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엄마가 강토의 생일을 잊으신 상황이라고 쓴 경우 | 6점 |

- 2 강토의 생일을 송이가 말해 주어 깨닫고 놀란 마음과, 강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놀라고 미안한 엄마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3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한 인물을 조사하도록 한다. 꼭 위인에게만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 가운데에서 찾을 수도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 인물을 쓰고, (2)에 고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곳을 쓴 경우 | 6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4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시내버스 번호의 첫 번째 번호는 출발지, 두 번째 번호는 도착지라고 했으므로, 1211번 버스는 1번 지역에서 출발해서 2번 지역에 도착하는 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번 지역에서 출발해서 2번 지역에 도착하는 버스라고 쓴 경우 | 6점 |

- 5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면 설명하려는 내용을 더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  |    |
|--|----|
| (1)에 바꾸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쓰고, (2)에 그 까닭을 쓴 경우 | 6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수행 평가

13쪽

- 1 (1) 예 태권도의 기본자세에는 앞서기, 주춤서기, 앞굽이 서기 따위가 있다.  
(2) 예 태권도의 기본 동작에는 손과 발을 쓰는 기술이 있다.  
(3) 예 태권도 띠에는 오방색이 사용된다.  
(4) 예 태권도를 하면 체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 2 (1) 예 태권도의 기본자세  
(2) 예 앞서기, 주춤서기, 앞굽이 서기 그림  
(3) 예 제목은 파란색으로 크게 쓰고, 말풍선을 사용해 동작의 특징을 간단하게 나타낸다.

- 1 각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정리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가~라)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 20점 |
| 가~라) 중 세 개의 중요한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 15점 |
| 가~라) 중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 10점 |
| 가~라) 중 한 개의 중요한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 5점  |

- 2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며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발표 자료의 제목을, (2)에 활용하고 싶은 그림을, (3)에 색, 크기, 모양을 활용할 방법을 알맞게 쓴 경우 | 10점 |
| (1)~(3)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1)~(3)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3. 정확하게 글을 써요

단원 평가 1회

14~15쪽

- 1 ㉔
- 2 2023년 질병관리청의 ‘올바른 손 씻기’ 안내 자료
- 3 (2) ○      4 ㉔      5 인주
- 6 한글 점자(훈맹정음)      7 ㉔
- 8 그러나      9 (3) ○
- 10 (1) ㉔ 이해하기 힘든 낱말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2) ㉔ 이해하기 쉬운 낱말을 써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1 손톱 밑을 손바닥에 문지르며 닦아야 한다고 했다.
- 2 2023년 질병관리청의 ‘올바른 손 씻기’ 안내 자료를 활용했다.
- 3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림이나 사진 자료뿐 아니라 글 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출처를 밝힌다.
- 4 글쓴이는 우리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했다.
- 5 이 글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활용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들어가면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가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6 이 글은 한글 점자(훈맹정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7 본문에서 글로 출처를 밝힌 것이 아니라 활용한 사진 자료 아래에 출처를 썼다.
- 8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연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므로, ㉔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될 때 쓰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한다.
- 9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될 때 쓴다.
- 10 어려운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자료의 출처가 없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또, 규칙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제시된 글의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고쳐 쓰고 싶은 점과 고칠 방법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단원 평가 2회

16~17쪽

- 1 그리고
- 2 2024년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 3 ㉔      4 석호
- 5 ㉔ 자료의 출처를 표시한다.      6 ㉔
- 7 ㉔
- 8 ㉔ 공공 화장실 문에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또는 장애인 화장실인지 알려 주는 점자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
- 9 (1) 그래서 (2) 그리고 (3) 그러나
- 10 ㉔

- 1 앞뒤 내용이 연결되므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가 들어가야 알맞다.
  - 2 제시된 글에서 출처가 드러나는 부분은 ‘2024년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이다.
  - 3 안전모를 쓸 때에는 눈썹 위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만 여유를 두고, 이마가 잘 덮이도록 써야 한다.
  - 4 유찬이는 새롭게 안 내용을, 라임이는 글쓴이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 5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가져온 곳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도 있다.
  - 6 수표는 숫자를 점자로 쓸 때 필요한 것으로 숫자가 시작된다는 표시이며, 수표 뒤의 글자들은 숫자로 읽는다.
  - 7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기관인지 확인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8 생활 속에서 점자가 필요한 곳을 떠올려 본다.
- 채점 기준** 주변에서 점자가 필요한 곳을 떠올리고 그곳에서 점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앞뒤 내용이 연결될 때에는 ‘그리고’를 쓰고,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될 때에는 ‘그러나’를 쓰며,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 될 때에는 ‘그래서’를 쓴다.
  - 10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이 알기 쉽게 써야 한다.

평가  
교재

## 서술형 평가

18쪽

- 1 (1) 질병관리청 누리집  
(2) 예 자료 아래에 출처를 썼다.
- 2 예 과학 잡지에서 참고한 자료의 아래쪽에 출처가 나와 있었다.
- 3 예 글을 읽을 때 출처를 확인하면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다.
- 4 (1) 예 책 읽기도 좋아합니다.  
(2) 예 글쓰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3) 예 늘 운동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 5 예 일의 순서나 방법이 잘 드러나게 쓴다. /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쓴다. /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쓴다. / 이어 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1 제시된 글에서 활용한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이고, 자료 아래에 출처를 썼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라고 쓰고, 자료 아래에 출처를 썼다고 쓴 경우 | 6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2 책을 읽다가 또는 누리집에서 사진이나 그림, 영상을 보다가 출처를 표기해 둔 것을 본 경험을 떠올려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평소 주변에서 출처를 본 경험을 쓴 경우 | 6점 |

- 3 글을 읽을 때 출처를 확인하면 글에서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료를 가져온 곳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쓰거나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고 쓴 경우 | 6점 |

- 4 '여진이는 운동을 좋아합니다.'라는 문장 뒤에 각각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가 나올 때, 어떤 내용의 문장이 이어져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는 '그리고', (2)에는 '그러나', (3)에는 '그래서' 뒤에 이어질 문장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1)~(3) 중 두 가지 문장을 알맞게 쓴 경우                                  | 4점 |
| (1)~(3) 중 한 가지 문장을 알맞게 쓴 경우                                  | 2점 |

- 5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일의 순서나 방법이 잘 드러나게 쓰고,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써야 한

다. 또한 이어 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예시 답안의 내용 중 한 가지를 쓴 경우 | 6점 |

## 수행 평가

19쪽

- 1 (1) 예 우리 반 친구들  
(2) 예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  
(3) 예 우리 반 친구들이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면 편리할 것 같아서이다.  
(4) 예 사물함에 보관할 사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 다음, 파일꽂이, 정리 바구니, 정리 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정리한다.  
(5) 예 내가 추천한 정리 순서와 방법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2 예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  
우리 반 친구들이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면 편리할 것 같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물함에 보관할 사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사물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분류한 다음에는 파일꽂이, 정리 바구니, 정리 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정리합니다.

제가 추천한 정리 순서와 방법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 주세요.

- 1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각 항목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읽는 사람, (2)에 알맞은 제목을 쓰고, (3)~(5)에 글로 쓸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 경우 | 15점 |
| (1)~(5) 중 네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12점 |
| (1)~(5) 중 세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9점  |
| (1)~(5)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1)~(5)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2 1번 문제에서 정리한 내용을 순서와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글로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결된 글을 쓴 경우 | 15점 |

## 4. 서로 존중하며 대화해요

단원 평가 1회

20~21쪽

- 1 (1) 진우 (2) 할아버지      2 진우, 할아버지  
 3 ㉠                              4 소민                              5 ㉠, ㉡  
 6 (1) ㉠ (2) ㉡      7 (2) ㉠                              8 (1) ㉡ (2) ㉠  
 9 예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 상대의 상황을 알 수 없다. / “여보세요?”, “이만 끊을게.”처럼 자주 쓰는 말이 있다.  
 10 ㉡

- 상황 ㉠은 성호가 진우의 생일을, ㉡는 진우가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고 있다.
- 상황 ㉡에서는 진우가 할아버지를 높이려고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 ㉠, ㉡와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 ㉣와 같이 웃어른께 인사할 때도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인사하고’를 ‘인사드리고’로, ‘집’을 ‘댁’으로 고쳐야 하며, 물건인 ‘떡’에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하므로 ‘떡이에요’로 고쳐야 한다.
- ‘먹으면’ 대신에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잡수시면’을 사용했고, ‘좋겠어요’에서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었다.
- 대화 ㉠에서 태수는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세와 말투가 공손하지 못했고, ㉡에서는 모듬 활동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다.
- 대화 ㉢에서 인혜와 진성이처럼 여럿이 놀 때 귀속말을 하면 다른 친구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말이고, ㉡는 상대가 통화하기 괜찮은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말이다.
- 전화 대화는 직접 만나지 않고 매체를 이용해서 나누는 대화로,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 상대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여보세요?”, “이만 끊을게.”처럼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채점 기준 전화 대화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전화로 대화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지 않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이만 끊을게.”처럼 끝인사를 하고 끊어야 한다.

평가  
교재

단원 평가 2회

22~23쪽

- 1 (1) ㉡ (2) ㉠      2 공식적      3 예 여쭙어보자  
 4 ㉡  
 5 예 ‘내가’ 대신에 ‘제가’를 사용했다. /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었다.  
 6 ㉡                              7 (2) ㉠                              8 ㉡  
 9 태연                              10 ㉡

- 대화 ㉠은 친구와 둘이 대화하는 상황이고, ㉡는 학급 회의를 하는 상황이다.
- 평소에는 반말을 하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회의나 발표와 같은 공식적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물어보자’ 대신에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 ‘여쭙어보자’를 사용해야 한다.
- 아마 사람들도 범수가 왕자님인 줄 알고 쳐다보는 것 같아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했으므로 우쭐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 엄마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내가’ 대신에 ‘제가’를 사용했고,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었다.

채점 기준 ‘내가’ 대신에 ‘제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나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었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야!’라고 부르며 동호를 존중하지 않고 말하는 효진이와 달리, 소영이는 동호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 친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명령하듯이 말하지 말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8 친구를 부를 때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불러야 한다.
- 9 상황 ㉠은 전화로 대화하고, ㉡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있으므로 대화 방식이 다르다.
- 10 어머니와 대화할 때에는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므로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말한다.

## 너슬형 평가

24쪽

- 1 (1) 할아버지  
(2) ㉠ '께'와 '드렸대'를 사용했다.
- 2 ㉠ 쉬는 시간에 친구가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셔."라고 말해야 한다.
- 3 (1) ㉠ 동호야, 지금 바빠? 이 책 좀 같이 들어 줄 수 있어?  
(2) ㉠ 미안해. 나 지금 선생님 심부름 가는 길이라 안 될 것 같아.
- 4 ㉠ 서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다.
- 5 ㉠ 운동장과 달리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말해야 한다.

- 1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에게' 대신 '께'를, '했대' 대신 '드렸대'를 사용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할아버지'라고 쓰고, (2)에 '께'와 '드렸대'를 사용했다고 쓴 경우 | 6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2 우리 주변에서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쓰고, 잘못된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쳐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쓰고, 바른 높임 표현으로 고쳐 쓴 경우      | 6점 |
|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썼으나, 바른 높임 표현으로 고쳐 쓰지 못한 경우 | 3점 |

- 3 친구에게 부탁할 때에는 친구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도와줄 수 없는 까닭을 자세히 말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책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2)에 그 부탁을 거절하는 말을 대화 예절에 맞게 쓴 경우 | 6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 4 예절을 지켜 대화하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상대와 좋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고, 대화를 나누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대화할 때 예절을 지키면 좋은 점을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5 대화하는 상대, 시간이나 장소, 대화의 목적이나 방식 등 대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화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운동장과 달리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말해야 한다고 쓴 경우 | 6점 |

## 수행 평가

25쪽

- 1 ㉠ 범수의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고, 범수가 엄마한테 반말을 하기 때문이다.
- 2 ㉠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다시 반말 써 주세요. 할머니도요, 네?"
- 3 ㉠ 높임말을 써서 예의를 지켜 말할 것이다.

- 1 범수의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자 아이들은 범수에게 너희 엄마가 네 부하냐며 범수를 놀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범수의 엄마가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고, 범수가 엄마한테 반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쓴 경우 | 10점 |

- 2 웃어른과 대화할 때는 '-습니다'나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고, 높임을 나타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사용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제가', '저한테' '네' 등의 낱말을 사용하고, '요'를 사용해 문장을 끝맺도록 고쳐 쓴 경우 | 10점 |

- 3 자신이 웃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범수는 웃어른에게 높임말을 쓰고 대화 예절을 지켜 대화할 것이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높임말을 잘 쓸 것이라고 쓴 경우 | 10점 |

## 5. 사전으로 여는 세상

### 단원 평가 1회

26~27쪽

- 1 예 오이      2 ㉓  
 3 (1) ㉠ (2) ㉡ (3) ㉢      4 예 반찬  
 5 ㉠      6 (1) 잡 (2) 잡다  
 7 ㉠  
 8 예 어느 날, 나는 '배려'라는 낱말을 먹었어. 그  
 랐더니 친구가 실수했을 때 친구를 놀리는 대신  
 응원하는 말을 해 주게 되었어.  
 9 도전, 존재, 행성, 호기심  
 10 (1) ㉠ (2) ㉡

- '.....에 가면' 놀이를 할 때에는 빈칸에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 와야 한다. 시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떠올려 써 본다.
- '학교', '자전거'는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고 '떡다', '던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 '울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칠판'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무섭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가운데 제시된 상황에 맞는 낱말을 떠올려 쓴다.
- 형태가 바뀌는 낱말에는 기본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기본형이라고 한다. 낱말의 기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다.
- '잡고', '잡아서', '잡으니', '잡으면'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잡'이고, '잡'에 '-다'를 붙여 '잡다'라는 기본형을 만든다.
- '기쁨'이라는 낱말을 먹었더니 무척 즐거웠고 온종일 정말 행복해서 설 새 없이 웃었다고 했다.
-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낱말을 골라 내용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낱말 하나를 쓰고, 그 낱말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쓰면 정답으로 한다.

- 국어사전에는 '도전', '존재', '행성', '호기심'의 순으로 실려 있다.

-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 또는 그 일.'을 뜻하고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을 뜻한다.

### 단원 평가 2회

28~29쪽

- 1 예 돌아갔어  
 2 (1) 예 공 (2) 예 잡다 (3) 예 즐겁다  
 3 (1) ㉠ (2) ㉠ 4 바뀌지 않는, -다  
 5 ㉠      6 ㉡  
 7 (1) ㉠, ㉡ (2) ㉠, ㉠ (3) ㉡, ㉡  
 8 지하자원, 땅속 (세계)  
 9 (1) ㉠ (2) ㉠ (3) ㉠ (4) ㉠ (5) ㉠  
 10 예 글 속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에 대해 내가 짐작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그리고 뭐 했어?' 놀이에서 빈칸에는 움직임은 나타내는 낱말이 들어가야 한다. '교실로'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떠올려 써 본다.
-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그림을 보고 '공', '친구', '잡다', '놀다', '즐겁다', '재미있다' 등의 낱말을 떠올릴 수 있다. 떠오르는 낱말을 낱말의 종류에 맞게 쓴다.
- '맛있으니'에서 '맛있'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 '으니'는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다.
- 낱말의 기본형을 만들 때에는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야 한다.
-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짧'에 '-다'를 붙인 '짧다'가 기본형이다.
- '나'가 두려움이라는 낱말을 먹었더니 그날 하루 종일 무서웠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으며, 학교에서는 칠판 앞에 불러 나가고 밤에는 침대 밑에서 괴물을 봤다고 했다.
- '학교', '칠판'은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떡다'와 '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괴롭다'와 '이상하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 지하자원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해지면서 땅속 세계가 더욱 궁금해졌기 때문에 답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땅속을 이루는 암석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9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려면 낱말을 이루는 글자의 짜임을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글자인 ‘답’의 짜임과 두 번째 글자인 ‘사’의 짜임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쓴다.

10 이 밖에도 국어사전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낱말의 뜻을 알게 되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낱말의 뜻을 알게 되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글 속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에 대해 내가 짐작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서술형 평가

30쪽

- (1) 예 규진, 다정하다  
(2) 예 지성, 귀엽다
- 예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을 나누고,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다.
- (1) 작다 (2) 예 내 동생은 나보다 키가 작다.
- 예 내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답답했다. 그런데 새롭게 배운 낱말로 보다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1 ‘부지런하다’, ‘다정하다’, ‘귀엽다’, ‘지혜롭다’, ‘상냥하다’, ‘꼼꼼하다’ 등 친구의 좋은 점을 떠올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로 표현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과 (2)에 각각 친구 이름과, 친구의 좋은 점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로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2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낱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형태가 바뀌는 낱말의 기본이 되는 형태인 기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을 나누고, 낱말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다고 쓴 경우 | 6점 |

3 ‘작고’, ‘작아서’, ‘작으니’, ‘작으면’의 기본형은 ‘작다’이다. ‘작다’를 넣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작다’라고 쓰고, (2)에 ‘작다’를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쓴 경우 | 6점 |
| (1)만 알맞게 쓴 경우                                  | 3점 |

4 새로운 낱말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와 대화가 더 잘될 수 있으며,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새로운 낱말을 사용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경우 | 6점 |

5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을 떠올려 ‘감정’이라는 낱말을 찾고 그 뜻을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쓴 경우 | 6점 |

## 수행 평가

31쪽

- (1) 예 잘 모르거나 새로움.  
(2) 예 ‘미지’를 ‘새로운’으로 바꾸어도 문장의 뜻이 통하기 때문이다.  
(3) 예 아직 알지 못함.
- (1) 예 ‘윤곽’, 보이는 모습.  
(2) 예 뒤에 점점 더 또렷해졌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3) 예 사물의 테두리나 대강의 모습.

1 낱말의 뜻을 짐작할 때에는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 보거나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문장의 뜻을 통하게 만들면 도움이 된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미지’의 뜻을 짐작해 쓰고, (2)에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쓰고, (3)에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을 쓴 경우 | 15점 |
| (1)~(3)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10점 |
| (1)~(3)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5점  |

2 국어사전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글 속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에 대해 내가 짐작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고른 낱말과 짐작한 뜻을 쓰고, (2)에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쓰고, (3)에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을 쓴 경우 | 15점 |
| (1)~(3)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10점 |
| (1)~(3)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5점  |

## 6. 감상과 표현의 즐거움

단원 평가 1회

32~33쪽

- 1 (1)㉠ (2)㉡ 2 ㉣ 3 같은, 다를  
 4 ㉡ 5 (2)○ 6 의견  
 7 ㉣ 8 (1)○ 9 ㉣  
 10 예 줄넘기를 하면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재미있다.

-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글은 작품을 감상한 사람이 느낀 재미나 감동이 잘 드러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과 그 이유가 나타난다.
- 하빈이는 레오가 진짜 꿈에 대해 생각하자 진짜 ‘텔’이 생긴 장면이 감동적이라고 했다.
- 친구들은 같은 작품을 보고도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건전지 엄마는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 건전지 엄마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싶다고 하며 인물에게서 교훈을 얻고 있다.
- 의견의 뜻과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다. 이에 어울리는 제목을 찾는다.
- ㉡은 상대의 마음을 오해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문제 상황을 쓴 부분이다.
- 대화 ㉡에서 주하는 요즘 운동량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 아침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아침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쓰면 정답으로 한다.

단원 평가 2회

34~35쪽

- 1 민지 2 ㉡  
 3 예 배려심이 있다. 4 ㉢  
 5 예 민지와 수진이가 나에게 안 들리게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미안했던 경험이 있다. 6 (1)○ 7 ㉠  
 8 예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기를 하자  
 9 지현 10 ㉡

- 마법사에게 ‘텔’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레오의 모습이 조금은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한 친구는 민지이다.
- 세영이는 친구들에게 놀받았을 때 무척 속상했던 경험이 있어서 레오가 안스럽다고 했다.
- 하나 남은 치킨을 자신이 먹지 않고 신비에게 양보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을 느낄 수 있다.
- 아빠는 딸인 신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비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며 먼저 먹으라고 권한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해했다가 풀렸던 경험을 떠올려 쓴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렸던 경험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좋은 점을 들어 편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의견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의견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의견이 아니다.
-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이다. 이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 본다.
- 글 ㉡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의견이나 이유를 고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의견과 이유인지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교재

## 서술형 평가

36쪽

- 1 (1) 예 『그레이엄 할아버지께』  
(2) 예 그레이엄 할아버지와 잭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서로를 다정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 2 예 어떻게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3 예 내가 가져온 과자를 당연하다는 듯 먹으면 내가 신비였어도 친구들에게 서운할 것 같다.
- 4 예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예 달리기를 매일 하면 체력도 길러지고 건강해진다. 온몸의 다양한 근육을 쓰고 심장과 폐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 1 자신이 본 작품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르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작품 제목을 쓰고, (2)에 그 작품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쓴 경우 | 6점 |

- 2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려고 나선 건전지 엄마의 생각이나 마음을 짐작해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려고 나선 건전지 엄마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맞게 쓴 경우 | 6점 |

- 3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신비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경우 | 6점 |

- 4 빈칸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의 의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쓴 경우 | 6점 |

- 5 이 글에 나타난 의견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이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하여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체력을 기르기 위해 점심시간에 함께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쓴 경우 | 6점 |

## 수행 평가

37쪽

- 1 (1) 예 교실 안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이 많다.  
(2) 예 걸어 다니자는 표지판을 만들어 교실이나 복도 곳곳에 붙여 놓자.  
(3) 예 교통 표지판을 보고 차들이 속도를 줄이듯이 뛰려고 하던 학생들도 표지판을 보면 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2 예 뛰지 않는 안전한 학교

교실 안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이 많습니다. 좁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잘 못하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과 부딪쳐서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어 다니자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교실이나 복도 곳곳에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표지판을 보고 차들이 속도를 줄이듯이 뛰려고 하던 학생들도 표지판을 보면 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손으로 표지판을 만들면서 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지 말자는 표지판을 만들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 1 우리 학급이나 학교의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본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에 우리 학급이나 학교의 문제 상황을 쓰고, (2)에 자신의 의견을 쓰고, (3)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쓴 경우 | 15점 |
| (1)~(3)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10점 |
| (1)~(3)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 5점  |

- 2 문단을 구분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하면 읽는 사람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점수  |
|---|-----|
| 1번 문제에서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알맞게 쓴 경우 | 15점 |